

## 갈라디아서 개요 (To the Galatians)

1. **저자:** 사도 바울. 1 장 1 절 참조. 사도 바울의 서신서 1 장 1 절들을 비교하여 읽어볼 것을 권합니다. 자신과 그의 사역을 향한 사도 바울의 생각이 변해가는 것을 엿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의 저자임을 보여주는 1-3 세기 교부들의 글이 무척 많다.
2. **갈라디아서의 대상, 씌여진 시기, 장소:** 갈라디아서의 저술 대상은 이 서신서가 작성된 시기, 장소와 밀접하게 관련이 된다. 우선 갈라디아라는 말은 북부 갈라디아 또는 남부 갈라디아를 가리킬 수 있는데, 인종적인 면에서는 북부 갈라디아를 의미하지만 그 당시 로마의 행정 구역을 기준으로 하면 남부 갈라디아의 비시디아의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와 같은 도시들을 포함한다. 사도 바울이 1 차 전도 여행에서 방문한 지역이 남부 갈라디아 지역이다. 그리고 사도행전에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으나, 바울이 2 차 전도 여행에서 거쳐간 지역이 북부 갈라디아 지역이라고 알려져 있다 (사도행전 16:6).  
근래의 다수 학설은, 갈라디아서가 바울이 1 차 전도 여행시에 전도했던 남부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로 보낸 서신이라는 것이다. 이 학설의 가장 근거가 되는 것은 갈라디아서 안에 예루살렘 종교회의 결정 사항이 (사도행전 15 장)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이다. 갈라디아서의 내용으로 보아서 예루살렘 종교회의 결정 사항들이 바울의 논리 전개에 아주 중요하게 사용이 되었을 것 같은데, 그 내용이 없는 것은 이 편지가 종교회의 이전에 적힌 것이라는 것을 반증한다고 한다. 이 학설은 갈라디아서 2 장에 나오는 내용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기근 구제금을 가지고 갔을 때의 기록으로 (사도행전 11:28-30) 해석을 한다. 이 의견에 따르면 갈라디아서는 예루살렘 종교 회의 이전인, 48 경에 적힌 서신이 되고, 사도 바울의 서신서 중에 가장 일찍 적힌 서신서가 된다. 서신서를 작성한 장소에 대해서는 분명한 기록이 없다.
3. **저술 목적:**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한 후에 유대주의자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믿음도 중요하지만, 구약의 율법, 특히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고 가르쳤다. 바울은 할례를 받는 것은 구약의 율법을 지켜야 하는 의무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상기 시키면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교리를 분명하게 확립하고 있다.
4. **특징:**

- 1 장 6 절: 보통의 바울 서신서들의 경우, 서신서를 받는 교회의 성도들에게 하는 인사 또는 감사의 말이 등장하는데, 이 서신서에서는 갈라디아 교인들이 ‘다른 복음’으로 넘어간 것을 탄식하는 말로 곧 바로 시작을 한다. 그만큼 바울이 급하다는 것을 느끼게 한다
- 앞서 언급한 학설을 따르는 시간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예루살렘 기근 구제금 전달 - 사도행전 11:30, 47 년 경
  - 1 차 전도여행 - 사도행전 13:4 - 14:28, 47-48 년경
  - 갈라디아서 작성 - 48-49 년경
  - 예루살렘 종교회의 - 사도행전 15:1-20, 49 년경
- 갈라디아 2:20 - 암송해보면 좋겠습니다

## 5. 주요 신학적 주제들

### A. 믿음으로 의롭게 됨

- 2:16 : 율법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 3:6 - 3:14 : 믿음의 자손이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 (3:7)
- 5:19-21 : 육신에 속한 일로는 의롭게 되지 못한다

### B. 예수님을 통한 속죄

- 3:13 - 14 : 죄를 통한 저주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

### C. 그리스도인의 변화 (성화)

- 3:2, 3:5 : 믿음을 통해 성령을 받음
- 5:5, 5:13, 5:22-23, 6:15 :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열매, 새롭게 창조됨

### D. 예수님에 대한 호칭

- 갈라디아서가 사도 바울의 첫번째 서신이라고 인정한다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구절들과 (1:16, 2:20, 4:4) 예수님을 ‘주 (Lord)’ 라고 부르는 부분 (1:3) 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내용들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얼마 되지 않아서, 예수님의 신성과 삼위일체 교리가 기독교인들 사이에서 인정되었음을 나타내 주는 중요한 자료가 된다.